

# 입담하다! '슈퍼스타' 김도영

KIA 김도영 KBO리그 MVP...기자단 투표 101표 중 95표

### 월간 첫 '10-10'...내추럴 사이클링히트 대기록 최연소 '30-30'·143득점으로 '역대 시즌 최다' KIA 네일 평균자책점상·정해영 세이브상 수상

KIA 타이거즈의 '신 해설사' 김도영이 프로 3번째 시즌에 최우수선수상(MVP)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도영은 26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된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에서 MVP로 당상에 올랐다.

김도영은 프로야구 취재기자단 투표 결과 101표 중 95표를 차지하면서 94.06%의 득표율로 2024시

즌 최고의 선수에 등극했다.

롯데 자이언츠 빅터 레이에스가 3표를 받았고 KT 위즈 멜 로하스 주니어, NC 다이노스 카일 하트,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이 각각 1표씩 획득했다. 올 시즌 김도영은 리그를 호령한 '슈퍼스타'였다.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내면서 189개(3위)의 안타로 타율 0.348(3위)을 찍었다. 그는 38홈런(2위), 타점 109개(공동 7위), 득점 143개(1위), 도루 40

개(6위), 출루율 0.420(3위), 장타율 0.647(1위)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

놀라운 기록 행진도 이어갔다.

4월에 KBO리그 역사상 첫 '월간 10홈런-10도루'를 달성한 김도영은 최연소·최소경기 '30-30'·'100득점'을 장식했다. 안타-2루타-3루타-홈런을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까지 장식했다.

그리고 올 시즌 143차례 홈을 밟으면서 팀 선배 서건창이 가지고 있던 역대 시즌 최다 득점(135개) 기록도 새로 작성했다.

예상대로 MVP에 등극한 김도영은 "이렇게 큰 시상식에서 MVP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올해 KIA가 통합 우승을 했다. 우승해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더욱 영광이다. 앞으로도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운동하고, 항상 느낌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

겠다"고 언급했다.

또 "그리고 '그런 날'이 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는 그런 날들이. 그런 날들이 입단하고부터 슬하게 있었던 것 같다. 그때 저한테 누가 해 준 말이 기억이 남는다. '너를 믿어라,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는 너를 보면 위안을 얻을 것이다'. 그런 날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면 좋겠다"며 "입단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함성 소리로 응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KIA 타이거즈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고 싶다. 저는 올해 팬분들 땀시 샅았다. 감사하다"고 자신의 밈(meem-SNS상 유행어)을 활용한 눈길 끄는 소감을 밝혔다.

김도영은 트로피와 함께 모기업인 기아의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EV9를 부상으로 받았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최연소 30-30을 달성하면서 기아로

부터 EV3를 선물 받기도 했다. 또 이날 김도영은 KBO 장타율상과 득점상 수상자로도 호명되면서 600만원의 상금도 획득했다.

최고의 신인으로는 두산 베어스의 김택연이 선정됐다. 김택연은 유효표 101표 중 93표를 받아 신인상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을 차지했다.

2024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로 두산 유니폼을 입은 그는 프로 첫해 60경기(나와 2.08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 2패 19세이브 4홀드를 기록했다.

이날 투타 부문별 시상도 진행되면서 KIA 제임스 네일과 정해영도 수상 소감을 밝혔다. 네일은 평균자책점상(2.53), 정해영은 세이브상(31개)을 받았다.

KIA 유격수 박찬호도 수비상 주인공으로 시상식을 찾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초심’으로 돌아가 2025 시즌에도 정상에 서겠다”

### 이범호 감독·KS MVP 김선빈 인터뷰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과 김선빈이 '팀퍼스트'가 만든 우승이었다고 '원탑'을 이야기했다. 사령탑 첫째 '우승 사령탑'이 된 이범호 감독과 '한국시리즈 MVP' 김선빈이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 본사를 찾았다. 선수단이 하나로 뭉쳐 만든 우승이라고 입을 모은 두 사람은 '초심'으로 돌아가 2025 시즌에도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4시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범호 감독(이하 이): 2024년은 '팀퍼스트'였다. 팀이 최고로 가는 길에 올 시즌이 포함되면 좋겠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모여서 우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팀이 첫 번째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김선빈(이하 김): 그냥 원탑이었던 것 같다. 모든 선수가 월타이 때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로 뭉치면서 올해 우승을 이룰 수 있었던 같다.

-우승 동력으로 이범호 감독의 '인내'를 꼽고 싶은데

▲이: 인내가 중요하다.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꼽으려면 인내가 첫 번째이지 않을까? 올 시즌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부상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젊은 선수들이 빠져있는 선수들 뒷을 굉장히 잘 해줘서 올 시즌에 더 나은 성적을 올린 것 같다. 그게 아니었으면 매년 똑같이 6월에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올라가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을 잘 넘어와서 좋은 성적이라는 것이다.

-김선빈을 보면 '베테랑'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고참들이 잘해줬다

▲김: 팀에 베테랑이 있는 편이다. 현종이 형이나 형우 형 그다음에 성범이 태군이 저 건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모든 베테랑 선수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감독님이 워낙 베테랑을 중요시해 주시니까 그것을 베테랑들도 알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한테 조언이나 이런 걸 많이 해줬던 것 같다.

-선수 시절 났던 김선빈이 베테랑 역할을 하는 것을 본 느낌은

▲이: 다들 선빈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잘 모른다. 걸로 봤을 때는 날카로우면서도 기쁘고, 속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 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시너지가 될 거라고 예상했고 앞으로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다. 한 팀에서 20년을 이제 뛰게 되겠지만, 한 팀에서 20년을 뛴 선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젊은 선수들도 알아서 한 팀에서 오래오래 좋은 선수 생활할 수 있는 팀으로 자주 발전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어려웠던 때 모습이 생각나는 후배는

▲김: 도영이가 살짝 보이긴 한다. 그전에 보았던 건 솔직히 찬호가 제일 많았다. 찬호 보면서 내가 저랬었구나 내가 미쳤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웃음)

▲이: 처음에 김선빈 왔을 때 '저는 고기안 구워봤는데요' 그런 게 있었다. 그때 솔직히 설마 선배들하고 밥 먹는 데 그런 말 했었냐고 생각했다(웃음). 당돌했던 선수들이 보면 야구를 잘한다. 당돌하고 막 물어보았던 선수들이 한 살 한 살

### 이범호 감독

선수단 하나로 뭉쳐 만든 우승 개인별 맞춤 훈련이 강팀 비법 김도영에서 '김선빈 천재성' 봐 팬 열정 깃든 '타이거즈 문화' 분위기 이어가 계속 우승할 것

### KS MVP 김선빈

감독님 배려에 편하게 운동 박찬호 보면 젊을 적 생각나 타이거즈에서 꼭 2000안타 당돌했던 김도영 '사람' 됐다 베테랑 끌여가는 주축 되길

먹으면서 팀이 하나로 뭉치는 데 일조 한다. 지금 사람됐다.

-신인 시절 '번트 안 대봤는데요'라고 했던 말도 화제였다. 김선빈의 천재성을 평가해 주시면

▲이: '도영이를 봤을 때 김선빈의 천재성이 있다'라는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 나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천재성을 시즌에 많이 못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최대한 체력에 맞게끔 훈련을 시키는 등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나이에도 3할 3푼을 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는 야구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선빈이가 훈련하는 방식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런 선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단체 운동이지만 개인에 맞는 것을 잘 찾아주면 팀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훈련 방식을 많이 배려해 주는 지도자다

▲김: 감독님은 저를 어려서 때부터 보셨다. 17년에 우승할 때도 훈련을 쉬고 경기를 해서 그 부분을 감독님이 제일 잘 아셔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다. 운동을 쉬고 경기를 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선수들이 많다. 도영이도 몇 번 쉬고 경기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을 감독님이 많이 바꿔주신 것 같다. 워낙 배려를 잘해주시니까 선수들도 편하게 쉬고 경기하고 운동할 때도 운동하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특별한 목표를 언급하지 않은 선수인데, 2000안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고 있다

▲김: 어려서 때는 3월에 30도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KIA 타이거즈라는 팀에서 2000안타를 꼭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크다. 다른 목표는 전혀 없다. 감독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 (김선빈을 향해) 3할을 쳐야 2000안타를 하지. 3할에 욕심 없다고 하면 안 된다.

-타이거즈맨이 돼서 선수, 감독으로 우승을 했는데, 뭘 더 해보고 싶으신지

▲이: 계속 우승하고 싶다. KIA 타이거즈라는 팀에 와서 첫 우승을 했고, 감독으로도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팀 문화가 있는 것 같다. 우승이라는 평가가 있다. 80년대 우승 90년대 우승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오른쪽)과 김선빈이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 본사를 찾아 'V12'의 역사를 담은 광주일보 지면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2000년대 우승 10년대 우승 20년대 우승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다. 그 문화 안에 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선수들도 기운을 잡았을 때는 확 밀고 가는 그런 것도 있어서 계속 하고 싶다. 광주에서 37년 만에 우승하겠다는 목표는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선수들이 있을 때 계속하겠다. 리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올 거니까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자주 우승에 도전해 보겠다.

-김도영이 MVP를 받았는데, 축하 인사를 해주신다면

▲김: 수상을 너무 축하하고, 올해 했던 것보다 내년에도 잘해서 베테랑이 어린 선수들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축이 돼서 베테랑들을 끌어줬으면 좋겠다. 축하한다.

▲이: 올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내줘서 고맙고,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홈런 38개, 114타점 정도를 계속 유지만 해주고(웃음). 내년에도 MVP를 계속 도전하는 그런 시즌이 되면 좋겠고, 부상 당하지 말고 시상식 많겠지만 체력 관리 잘하고, 올 시즌 고맙다. 화이팅.

-서로에게 하고 싶은 감사 인사, 부탁할 게 있는지

▲김: 감독님이 되시고 나서 조금 더 편하게 야구를 했던 거 같다. 일단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00안타 칠 때까지는 감독님을 계속 이렇게 띄워드려야 한다(웃음). 내년에도 다치지 않고 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이런 대선수와 함께 감독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다. 올 시즌 제일 감사한 부분 중 하나가 몸이 아픈데도 다 뛰어 주고, 경기를 빼주

지 못하는 데도 '후배들 먼저 빼주십시오. 재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제는 칠 다 들었구나, 내가 없어도 팀을 이끌어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선수가 됐다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뿌듯했다. 앞으로도 부상 당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안타 2000개가 아니고 2500개까지 몸 관리 잘해서 좋은 성적 올리면 좋겠다.

-광주일보 독자들에게 한마디

▲김: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승은 올해까지만 간직하고 내년에도 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최고의 높이 정상에서서 우승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 내년에도 광주일보와 함께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